

동양그룹 서남재단

서남동양학술총서, 서남동양학자료총서

동아시아 연구에 바친 10년, 학술사업의 새 전범 보여



년 사업비 10억 원 가운데 학술사업에 1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총서 대상은 매년 정기 선정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심사부 문은 논저, 번역, 박사학위논문 등 3부문이다. 논저는 동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연구로서 단행본 1권 분량이며, 번역은 지역연구와 관련된 외국학자의 논저로서 국내에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고른다. 박사학위논문은 국내외에서 통과된 분야와 관련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논저부문과 박사학위논문부문은 '서남동양학술총서'로, 번역부문은 '서남동양학자료총서'로 발간된다. 세부지원분야는 동아시아 지역과 관련한 문학, 역사, 철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등이며 국가간 비교연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정된 저자에게는 논저 1,500만 원, 번역 1,500만 원, 박사학위논문 7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총서 연구과제로 선정된 것은 84과제. 현재 출간된 것이 30과제이며, 나머지 54과제가 출간 준비중이다.

서남동양학술총서는 1994년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을 첫 권으로 2004년 현재 《지식청년과 농민사회의 혁명》까지 모두 28권이 출간되었다.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 관계 연구》는 출간 이후 학계와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끈 저작. 서남동양학자료총서는 2000년 《신언준 현대 중국 관계 논설선》을, 2002년 《역주 매씨서평》을 출간했다. 《역주 매씨서평》과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는 내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양학술총서와 동양학자료총서는 초판 1,500~2,000부를 인쇄한다. 작년까지의 전체 판매율은 75퍼센트. 학술서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흡족할 만한 수치다. 한편 서남재단은 총서 심화작업을 위해 2005년부터 사업비를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총서연구지원과 총서간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술행사, 학자교류 등의 부대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남재단의 학술사업은 양적 공과를 떠나 일정주제를 잡고 일관되게 추진해 학술사업의 새로운 전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진**

동양그룹 서남재단은 1983년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9년 서남장학재단에서 서남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하고서 학술, 문화, 교육기관 지원, 보육시설 운영 등 사업대상을 전폭적으로 확대했다. 서남재단의 기본자산은 150억 원(2004년 기준), 모 그룹인 동양그룹과 오리온그룹에서 매년 10억 원의 기부금을 지원받아 재단 사업을 운영한다.

서남재단의 출판관련 사업의 결과물은 출판사 문학과지성사와 출판대행계약을 맺고 출간하는 '서남동양학술총서'와 '서남동양학자료총서'가 있다. '서남동양학술총서'는 동아시아에 관한 새로운 이론체계를, '서남동양학자료총서'는 동아시아 연구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학술자료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서남재단 이용 부장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 속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며 주목받고 있고, 서구문명을 대신할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온상으로 평가되는 동아시아는 연구가 시급한 미개척 분야였다"면서 "또한 동양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창업자의 정신을 승계하고자(동양그룹의 사명 '동양'도 여기에 기인한다) 학술사업의 주제를 동아시아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1

취재 | 박용두 기자